

'보건의료자문관' 본격 활동 돌입

전주시, 코로나19 사태 관련 전국 지자체 중 유일... 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자문 받아 신속 대응 가능

전주시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보건의료자문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3일 코로나19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자문관 3명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보건의료자문관으로부터 역학조사, 방역 등 전문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다.

이날 위촉된 자문관으로 전북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인 권근상 교수의 경우 전라북도 민관합동 메르스 역학조사반과 메르스백서 민간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감염병 관련 베테랑이다.

전북대학병원 호흡기전문집현센터 예방관리센터장인 이주형 교수 역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과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 전문적인 지식

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

전북대병원 감염분과의 황정환 교수 역시 세계적인 의학잡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감염병 관련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복잡하고 감염원이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위촉한 자문관을 중심으로 역학조사, 방역대응 및 접촉자 관리 등 역량을 강화해 감염병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갈수록 신종 감염병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선제적인 방역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건소와 덕진진료실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공공보건조사 2명을 전북도의 지원으로, 추가 배치한다. 보건소에는 현재 의사 5명과 공공보건조사 2명이 시민들의 진료활동을 진행



전주시는 3일 코로나19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자문관 3명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중으로 추가 총원 시 총 9명으로 늘어난다. 보건소장도 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간 시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의 경우 이동경로와 접촉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이

번 보건의료자문관 위촉으로 한층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전문가, 자치단체, 시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전주시, 6일까지 참여자 총 30명 모집

전주시가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선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는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마련하고, 오는 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은 농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이수 후 농업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받아 도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도시농업 보급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와 제도 △도시농업 리더십

및 도시농업 현장체험 △도시농업 농사의 기술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으로, 매주 화요일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총 12회 90시간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ke01250@korea.kr) 또는 팩스(063-214-3245)로 접수하거나,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개강일을 연기한 상태로,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교육일정을 재공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공원 연화정 전통 한옥건물로 재건축 추진

연말까지 총 30억원 투입해 전통 한옥의 미 강조

전주시민 휴식처인 덕진공원의 대표 건축물인 연화정이 전통한옥 건물로 새롭게 태어난다.

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덕진공원 연화정을 전통 한옥건물로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1980년 3층 높이의 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한식기와의 엮은 형태로 건립된 연화정은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으며,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보수보강보다는 재건축기로 결정했다.

시는 과거 연화교와 함께 덕진공원

의 상징물이었던 연화정을 연못중앙부에 있는 기존 섬을 넓혀 건축면적 393.75㎡(120평) 규모의 전통한옥 형태로 신축기로 했다.

특히 시는 새로 건립될 연화정이 전통정원과 연꽃을 감상하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누마루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화정 주변에 대해서는 전통올타리(와담)로 두르고 한옥대문을 설치하는 등 전통 한옥의 미를 강조할 방침이다.

시는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현수교 형태의



덕진공원 연화정 조감도.

연화교도 오는 7월까지 전통석교 형태로 재가설할 예정이다. 연화교는 길이 283m, 폭 3.06m 규모로 직선과 아치가 어우러진 형태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연화교와 연화정이 재건축되면

시민들이 연꽃을 감상하며 다양한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덕진공원이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20개 공영·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개 공영 및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기로 했다.

또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감면을 독려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주시 18개 공영주차장 등(총 2583면)을 최대 2시간까지,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및 동물원 부설주차장(총 975면)

을 24시간 무료로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한옥마을 제1·2·노상 △동물원 △오거리 △덕진광장 △건산천 제1·2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노송천 △신시가 지 공영주차장(도청, 시티병원, 농협,

KB, 흥산, 비비이) 등이다.

특히 동물원 휴장으로 인해 이미 전면 개방하고 있던 동물원 부설주차장(840면)과 함께 한옥마을 노상주차장(135면)도 코로나19로 여행객의 발길이 줄어든 한옥마을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김윤상 기자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조성 위해 2022년까지 300억원 투입

전주시가 오염된 아중천을 1급수 환경지표종인 버들치가 헤엄치는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아중천을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중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수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수로를 개량해 하천 생태계도 살리면서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약 7km 구간의 아중천을 왜암실마을부터 아중호수에서 이르는 3.2km의 상류구간과 아중호수부터 소양강 합류점까지의 3.8km의 하류구간으로 구분해 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상류구간에 대해서는 하폭을 기존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한편 수질정화를 돕는 자연형 여울 10개소를 설치하고 교량 6개소를 가설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시민들을 위한 4.9km의 생태탐방로도 조성한다.

시가지와 인접한 하류구간의 경우 시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염원들을 차단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

도록 2개소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또 △교량 2개소 설치 △꽃밭탐방로 2.6km 조성 △생태숲 2114㎡ 및 생태습지 2만7000㎡ 조성 △미중습터 5000㎡ 조성 등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환경을 만들어 1급수 환경지표종인 버들치와 얼룩동사리 등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4월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선정사업'에 선정됐으며,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에 대한 환경청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보조사,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설계 등을 거쳐 왔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변 아중저수지와 호풍골 양묘장 주변에 계획 중인 지방정원 등과 연계해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